

2026. 7. 20

소비재/플랫폼 Weekly

삼푸의 요정: 2026년 상반기 결산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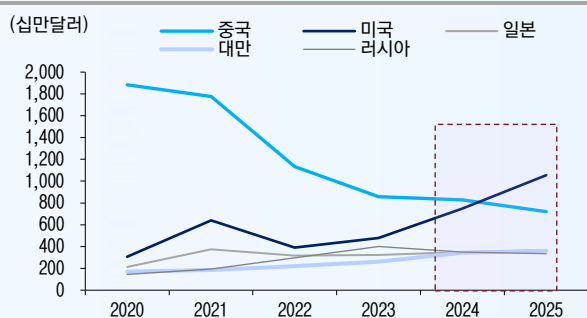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2026년 상반기 국내 헤어케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한 2.8억달러를 기록
- ✓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향 수출액: YoY 47.9% 증가한 7,704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율 상회
- ✓ 아로마티카: K헤어케어 확산 수혜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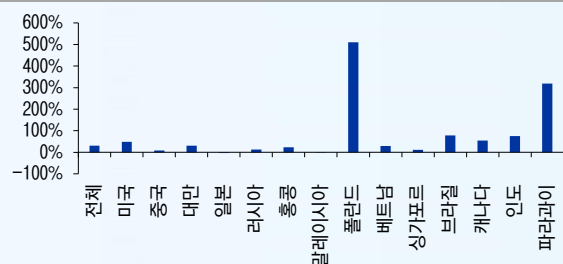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헤어케어 수출액 → 미국이 중국 역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헤어케어 제품 2026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액 성장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이 이끌고 유럽/남미가 더하는 K헤어케어 성장

헤어케어가 K뷰티 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2026년 상반기 국내 헤어케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한 2.8억달러를 기록했고, 미국향 수출은 7,704만달러로 47.9%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을 상회. 미국은 전체 수출의 27.1%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월별로도 1월 +71.5%, 2월 +101.5%, 3월 +48.3%, 4월 +53.2%, 6월 +37.6%를 기록해 5월을 제외하면 높은 성장세가 지속. 반면 중국은 8.4% 증가에 그쳤고 일본은 4.1% 감소해, 상반기 헤어케어 수출 성장은 미국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 미국 내 K뷰티 수요가 스킨케어에서 두피 세럼, 헤어 트리트먼트 등 기능성 헤어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성과가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로 이어지는 구조도 강화되고 있음.

지역 다변화도 빠르게 진행 중. 폴란드향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09.5% 증가한 7,582만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수출국 8위까지 상승했고, 브라질과 파라과이도 각각 77.9%, 319.0% 성장. 특히 파라과이는 6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728.4% 증가하며 성장세가 가속화. 캐나다향 수출도 상반기 54.4% 증가했고, 6월에는 전년 대비 약 4.7배 급증. 단일 채널 입점이나 일회성 물량 가능성은 확인이 필요하나, 미국에서 검증된 K헤어케어 수요가 캐나다와 유럽, 남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기존 미국, 중국, 일본 중심의 수출 구조가 신규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헤어케어는 K뷰티의 차기 수출 성장 품목으로 자리 잡을 전망.

샴푸의 요정: 2026년 상반기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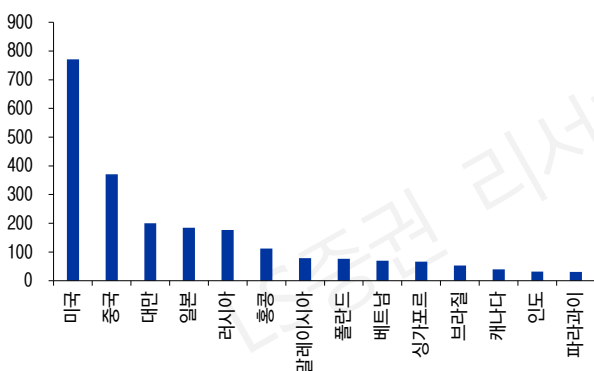
미국이 이끌고 유럽/남미가 더하는 K헤어케어 성장

헤어케어가 K뷰티 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헤어케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0.1% 증가한 2.8억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향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9% 증가한 7,704만달러로 전체 헤어케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며, 전체 수출액의 27.1%를 차지했다. 월별로도 1월 +71.5%, 2월 +101.5%, 3월 +48.3%, 4월 +53.2%, 6월 +37.6%를 기록해 5월을 제외하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됐다. 중국향 수출은 8.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일본은 4.1%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상반기 헤어케어 수출 성장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 내 K뷰티 수요가 스킨케어를 넘어 두피 세럼, 헤어 트리트먼트 등 기능성 헤어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에서 확보한 판매 실적이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로 연결되면서 성장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 더해 유럽과 남미 등 신규 지역으로의 침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폴란드향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09.5% 증가한 7,582만달러로 상반기 주요 수출국 8위까지 상승했으며,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2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77.9% 증가한 5,343만달러, 파라과이가 319.0% 증가한 3,08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파라과이의 6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28.4% 증가해 성장세가 가속화됐다. 캐나다향 수출도 상반기 54.4% 증가했으며, 6월에는 전월대비 약 4.7배 급증했다. 캐나다는 그동안 주요 수출국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단일 채널 입점이나 일회성 물량일 가능성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미국에서 검증된 K헤어케어 수요가 인접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 미국, 중국, 일본 중심이던 수출 구조가 유럽, 남미, 북미 인접국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헤어케어는 K뷰티의 차기 수출 성장 품목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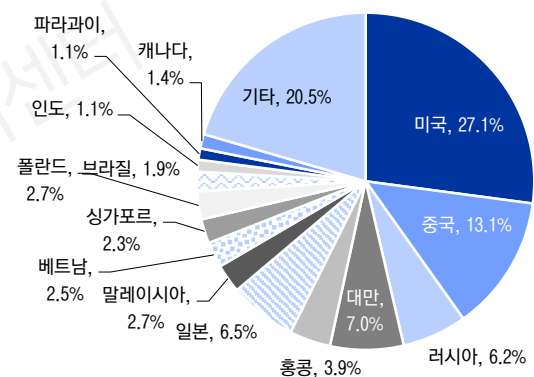
그림1 헤어케어 제품 2026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액

(십만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26년 상반기 미국 27.1%로 상승(2025년 22.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아로마티카, 글로벌 헤어케어 성장의 직접 수혜

아로마티카는 이러한 헤어케어 수출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동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헤어 제품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헤어 매출 비중이 기존 50%에서 약 60%까지 상승했으며, 주력 제품인 로즈마리 루트 인핸서의 매출 비중도 12%에서 15% 수준으로 확대됐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스칼프 카테고리 3위에 이어 올해 프라임데이 1위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미국 아마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90%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상반기 글로벌 매출은 40~50% 성장하고, 글로벌 매출 비중은 38% 이상, 미주 비중은 기존 24%에서 35%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1분기 전사 매출액은 YoY 20% 성장한 140억원, 영업이익률은 9.5%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성과가 오프라인 채널 확대로 연결될 전망이다. 미국 Target 채널 611개점 입점이 본격화 되고, 유럽에서는 두글라스와 로스만을 통해 스페인, 체코, 폴란드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헤어케어 수출이 상반기 509.5% 증가한 가운데 현지 1위 사업자 로스만 온라인 채널에 이미 진출해 있고, 2위 사업자인 헤베(Hebe)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온 상황으로 파악된다. 아마존 중심의 B2C 성장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이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B2B 채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표1 아로마티카 분기별 실적 추이

(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QoQ(%)	YoY(%)
매출액	117	128	129	138	140	1.8%	19.9%
국내	76	92	91	95	96	0.6%	25.0%
글로벌	41	36	38	43	44	4.6%	10.2%
매출원가	39	41	39	42	40	-5.7%	3.4%
매출총이익	78	86	90	95	100	5.2%	28.1%
GPM	66.6%	67.6%	69.7%	68.9%	71.2%	+2.3%p	+4.6%p
판매비와 관리비	66	75	71	85	87	1.8%	29.8%
인건비	18	18	20	22	21	-6.6%	12.1%
광고선전비	14	16	11	16	14	-11.9%	0.6%
운반비	12	13	13	15	15	3.0%	27.2%
수출제비용	1	1	1	3	3	4.9%	282.1%
지급수수료	13	19	18	21	26	23.7%	93.4%
경상연구개발비	3	3	3	3	2	-20.8%	-17.2%
감가상각비	2	3	2	2	3	21.5%	22.3%
기타비용	3	3	2	3	3	-	-3.4%
영업이익	11	11	19	10	13	34.2%	18.3%
OPM	9.7%	8.7%	14.7%	7.2%	9.5%	+2.3%p	-0.2%p

자료: 아로마티카,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아마존 두피케어 부문 1 위: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루트 인핸서

Amazon Best Sellers

Our most popular products based on sales. Updated frequently.

Best Sellers in Scalp Treatments

#1  AROMATICA Root Enhancer Rosemary Water for Hair Growth spray - with Rosemary hair oil & caffeine & biotin - Korean hair care for hair... ★★★★☆ 4,522 \$17.64	#2  Divi Scalp Serum for Thinning Hair Clinically Tested, Non-Greasy Formula with Amino Acids, Caffeine & Rosemary Oil Promotes Healthy... ★★★★☆ 2,810 \$48.00	#3  WEEMOTD 100% Raw Batana Oil for Hair, Unrefined Conditioning Scalp Oil from Honduras, Moisturizing Hair Mask, Adds Shin... ★★★★☆ 3,276 \$15.38
---	---	---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표2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6,821	55,769,178	-6.5	-21.8	9.6	40.9	114.1	61.9	-	-	-	-	-	-	-
코스피 대형주	7,485	51,543,121	-7.0	-22.2	12.8	46.6	135.9	71.0	-	-	-	-	-	-	-
코스닥	792	4,434,192	-0.3	-22.3	-31.9	-17.1	-2.5	-14.4	-	-	-	-	-	-	-
코스피 중형주	3,903	3,329,486	-0.4	-18.2	-17.3	-0.3	9.5	4.9	-	-	-	-	-	-	-
코스피 소형주	2,263	856,244	1.3	-10.8	-21.7	-10.5	-13.8	-10.1	-	-	-	-	-	-	-
유통															
코웨이	96,700	68,432	13.8	6.0	16.1	27.1	-9.8	11.3	11.4	9.6	8.3	1.9	1.6	1.4	
호텔신라	47,800	18,761	-2.6	-20.1	-11.2	2.8	-6.5	7.2	-13.3	16.9	12.5	1.6	1.5	1.3	
BGF 리테일	126,400	21,847	5.2	-1.4	-8.0	9.7	4.6	20.6	11.7	9.7	8.7	1.7	1.5	1.3	
GS 리테일	26,400	22,072	5.6	3.1	11.4	25.1	51.8	31.3	14.9	10.8	9.6	0.7	0.6	0.6	
롯데쇼핑	140,800	39,831	-11.1	-28.9	15.7	88.0	85.0	94.2	50.7	10.3	9.0	0.3	0.3	0.3	
신세계	589,000	55,632	-2.8	-23.2	56.9	106.3	209.7	138.5	54.9	14.4	12.5	1.2	1.1	1.0	
이마트	79,700	21,994	0.1	-12.4	-23.0	-4.6	-17.8	-2.0	6.8	15.3	8.5	0.2	0.2	0.2	
현대백화점	157,400	33,943	-6.1	-20.7	72.6	63.8	97.7	77.7	15.6	12.1	9.5	0.7	0.7	0.7	
SK 네트워크스	7,990	16,027	-3.7	-33.4	45.0	79.2	63.7	76.8	33.0	20.2	22.7	0.8	0.8	0.8	
인터넷															
NAVER	190,000	298,194	3.0	-21.5	-13.0	-22.6	-24.0	-21.7	13.9	15.9	13.0	1.0	1.0	0.9	
카카오	35,900	159,030	6.7	-11.3	-29.1	-37.4	-36.0	-40.3	29.6	23.1	19.6	1.5	1.3	1.2	
게임															
크래프톤	240,500	110,961	0.8	1.5	-6.2	2.8	-30.4	-2.2	13.0	10.1	9.0	1.4	1.3	1.2	
넷마블	36,300	29,742	-5.1	-13.2	-30.1	-27.5	-41.7	-24.8	9.8	7.6	8.7	0.5	0.5	0.5	
NC	223,000	48,043	-10.6	-14.6	-16.3	-5.7	5.2	10.7	13.4	10.2	9.6	1.3	1.1	1.0	
펄어비스	34,150	21,461	-6.3	-14.9	-38.3	-13.2	-11.4	-8.7	-246.1	6.0	14.2	2.7	1.8	1.6	
카카오게임즈	7,850	8,419	-7.4	-13.8	-36.9	-45.1	-54.9	-47.3	-5.2	-7.2	-108.1	0.6	0.8	0.8	
더블유게임즈	61,600	13,043	-3.3	-9.9	18.7	20.8	6.0	14.9	8.9	6.7	5.8	0.9	0.9	0.8	
NHN	37,400	12,250	-1.3	-3.4	-7.9	22.6	30.1	28.7	34.6	10.7	8.8	0.8	0.7	0.7	
웹젠	11,290	3,496	-8.6	0.2	-11.3	-7.1	-24.8	-12.5	13.6	10.5	8.4	0.5	0.5	0.4	
컴투스	25,500	3,083	-1.7	-1.9	-24.7	-17.3	-37.5	-12.2	64.6	21.5	9.5	0.3	0.3	0.3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24,400	72,765	7.0	12.7	-6.6	2.5	-7.9	4.1	32.0	24.1	21.3	1.6	1.5	1.4	
LG 생활건강	246,500	36,915	2.3	0.0	-2.8	-6.8	-25.0	-4.6	34.1	21.8	17.5	0.7	0.7	0.7	
실리콘투	36,050	23,640	1.4	2.9	-23.1	-14.3	-31.9	-6.7	13.0	10.6	8.4	5.3	3.6	2.6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5,000	19,115	6.4	1.2	-10.6	-3.3	-24.5	-6.9	15.3	n/a	n/a	0.7	n/a	n/a	
한국콜마	107,600	25,399	4.7	25.6	27.3	68.4	0.6	73.3	24.5	14.6	12.3	2.9	2.4	2.0	
코스맥스	181,100	20,554	4.4	8.4	-11.0	-3.3	-28.6	11.1	35.6	13.8	11.4	4.1	3.1	2.6	
브이티	11,820	4,130	-0.5	-6.6	-26.3	-26.9	-68.0	-32.5	6.9	7.9	6.4	0.0	1.4	1.1	
코스메카코리아	84,800	9,057	-0.8	25.1	0.7	27.1	25.3	27.3	18.5	13.1	11.4	3.5	2.9	2.3	
씨앤씨인터내셔널	19,000	2,590	-5.7	-4.0	-30.2	-37.5	-57.6	-35.9	11.5	14.2	12.7	1.2	n/a	n/a	
클리오	10,740	1,941	-3.8	0.9	-13.7	-17.1	-34.0	-17.6	14.1	9.4	8.8	n/a	0.7	0.7	
한국화장품제조	7,880	1,786	3.4	-3.9	-18.3	-17.5	-39.0	-19.4	n/a	n/a	n/a	n/a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8,580	1,431	4.5	-6.0	-27.0	-42.1	-50.3	-37.1	6.2	6.7	5.6	1.3	1.2	1.1	
마녀공장	17,290	2,834	7.2	17.1	29.6	23.7	-10.4	26.3	n/a	n/a	n/a	n/a	n/a	n/a	

자료: Qua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7.16 종가 기준

아로마티카 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내역											
(원)	주가	목표주가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5,000			2026.07.20	변경	오리아									
20,000			2026.07.20	NR	NR									
15,000														
10,000														
5,000														
0														
25/11														
26/05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리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0.3% 9.7% 100.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투자 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